엘렌 쇼처럼 영향력 있는 토크쇼 진행자를 꿈꾸다

스브스뉴스 이은재 PD

글 김지현 객원기자 jihyunsports@mtn.co.kr **사진** 성혜련

"엘렌 쇼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토크쇼를 만드는 게 목표다. 가장 핫하고 트렌디한 인물은 꼭 이 곳을 거쳐야 하는 그런 쇼. 그 쇼의 진행자가 되고 싶다."

엘렌 쇼는 'The Ellen DeGeneres Show' 줄임말로 미국에서 인기가 높은 토크쇼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들이 출연해 진행자 엘렌과 이야기를 나누고, 게임을 하거나 몰래카메라 같은 영상을 제작하기도 한다. 이러한 포부를 밝힌 이는 '일반인이지만 연예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 부르는 연반인'으로 최근 10대를 비롯해 20~30대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이은재 PD다.

뉴미디어 시장 트렌드를 빨리 읽는 능력자

5월 22일 목동 SBS를 찾았다. 등장에서부터 시선을 끄는 한 사람, 빨간색 머리를 한 스브스뉴스 이은재 PD다. 패션잡지 사진 촬영 때문에 머리를 염색했다는 이은재 PD는 실제로도 연반인으로 사는 핫피플(Hot People)이었다.

그가 일반인인지 연예인인지 혼란스러운 것처럼 헷갈리는 게 하나 더 있다. 그의 직업이다. 그는 PD와 콘텐츠 기획자, 크리에이터, 작가 등 딱 하나로 자신의 직업을 정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명세에 대해 "운이 좋았다"며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뉴미디어 시장에서 트렌드를 빠르게 읽고 과감하게 뛰어들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한 '능력자'다.

이은재 PD 인터뷰는 조금 특별하게 진행했다. 연반인으로 점점 팬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은재 PD팬으로 권동현, 김지연, 엄소정 3명을 뽑아, 이들이 질문을 만들고,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다. 실제 질문, 답변과 달리 인터뷰 내용을 평서체로 구성했다.

> 그는 PD와 콘텐츠 기획자, 크리에이터, 작가 등 딱 하나로 자신의 직업을 정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연 재없사(연반인 재재 없이 못사는 사람 모임)가 생긴 것을 아는가. 또 자신이 요즘 20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도 아는가.
재재 회사 인턴들이 얘기해 줘 알고 있다. 음…, 민망하긴 하지만 내가 얼마 전까지 20대여서, 20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게 이유인 것 같다. 또 젊은 대학생과 20대 인턴과도 접촉이 많다.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다 보니,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도 자연스레 조금씩 오르는 것 같다.

일반인이지만 연예인 같은 인기를

동현 연반인으로 사는데 불편한 점은.
재재 인기가 올라가는 만큼 불편한 게 많아지고 있다. 연예인들은 그 불편함을 상쇄할 수 있을만큼의 보수를 받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해서…. 농담이다.(웃음) 사실 불편하다기보다는 당황스러울 때가 더 많은 것 같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알아보고 인사할 때는 많이 어색하다. 또 최근에 공항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이때 나를 알아보고 '재재님, 아니세요?'라고 물었는데, 지갑을 찾느라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말을 건네지 못했다. '제가 지금 지갑을 잃어 버려서요'라고 말하고는 정신없이 지갑만 찾은 것 같다. 대화를 나누기 곤란한 상황에 인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럴 때마다 당황스럽다.

동현 인기가 올라가면서 팬미팅 요청이 많다. 팬미팅 계획은.
재재 음…, 하고 싶다. 그런데 예전에 게릴라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 생각보다 우리가 통제나 관리를 잘 못한다는 사실이다. 팬미팅은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소속사가 생긴 뒤에나 가능할 것 같다.

소정 평소 성격도 영상 속 모습과 비슷한가.
재재 완전히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촬영중에는 평소보다 텐션을 더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항상 미친 사람처럼 날뛰지는 않는다. '촬영할 때 에너지 소모가 엄청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촬영하지 않을 때는 최대한 숨을 죽이고 있으려고 노력한다. 쉬면서 텐션을 모아놓았다가 촬영 때 '빡'하고 발산한다.

이은재 PD는 적극적인 태도와 뛰어난 센스로 매 콘텐츠마다 톡톡튀는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스브스뉴스 유튜브

톡톡 튀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재재

지연 평소 낯가림이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낯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먼저 연다. 비결이 있다면.
재재 의도적으로 많이 노력한다. 예전에 카드뉴스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람을 인터뷰했다. 그때마다 낯을 가리고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더 불편해했다. 그러면 결과물도 좋게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쉽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한다. 인터뷰이들이 내가 조금 까불어도 충분히 이해해줄 것이라고 믿고, 적정 수위를 봐가면서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결과물도 잘 나오고 있다.
소정 콘텐츠 소재는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나.
재재 우리는 회의를 따로 정해서 하지 않는다. 문명특급이나 해피 아가리 콘텐츠는 모두 지인들과 '이게 진짜 웃기다, 요즘 이게 핫하대' 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웃고 떠들면서 자연스레 소재를 찾는다. 소위 말해 '농담 따먹기' 하다가 나오는 셈이다. 일과 중 촬영과 섭외에 쓰는 시간이 가장 많다. 이 외 시간은 이렇게 얘기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한다. 그리고 업무 시간이 끝나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보지 않는다. 독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SNS를 싫어하는 편이다.

지연 콘텐츠를 제작할 때 가장 영감을 많이 받는 부분은.
재재 사람들과의 '지저귐'일까. (웃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다보면 재밌다고 느껴지는 것이 톡톡 튀어나온다.

스브스뉴스 PD로 맹활약하는 재재

소정 PD로서 업무에서 가장 힘들거나 어렵다고 느낀 부분은.

재재 콘텐츠를 일주일에 하나 이상 꾸준히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다. 매주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지금은 과거에 비하면 그나마 조금 낫다. 처음 콘텐츠를 만들 때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무척 힘들었다. 이런 시스템도 누가 제공해 준 것이 아니다. 스스로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만든 것이다. 아이디어에서부터 콘텐츠를 실제로 완성시킬 때까지의 과정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고 나서야 괜찮아졌다.

동현 스브스뉴스가 젊은 제작자들의 참신한 시선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모기업 SBS는 레거시 미디어이고, 스브스뉴스를 총괄하는 관리자는 본사 소속 기자로 알고 있다. 콘텐츠 제작 자율성은 어떤가.

재재 초반에는 확인 과정을 많이 거쳤다. 그러다보니 자꾸 지체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려 힘들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대중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구상했다. 결국 돌아보면 확인 과정을 통해 '오케이' 사인을 받은 콘텐츠들이 전연령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콘텐츠의 조회수가 잘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우리를 더 믿어 주고 있다. 요즘에는 덜 관여하는 편이다.

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은재 PD. 덕분에 밝은 분위기에서 인터뷰가 진행됐다.

소정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와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는.

재재 박원순 서울시장 인터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원래 육체적으로 힘들면 뇌리에 깊이 박힌다고 하는데, 그때 더위 때문에 너무 힘들게 촬영했다. 그래서 그런지 기억에 팍팍 남았다. 좋아하는 콘텐츠는 숨듣명(숨어서 듣는 명곡) 시리즈다. 이 시리즈는 시즌제로 가고 있는데 촬영할 때마다 아주 재밌다. 개인적으로 큰 애착을 갖고 있다. 쭉 이어졌으면 하는 콘텐츠 시리즈다.

동현 문명특급이 온오프라인에서 '희화화'되던 소재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소재의 '재희화화'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다. 희화화와 재평가 경계를 다룰 때 주의하거나 신경 쓰는 게 있는가.

재재 문명특급은 재미보다 의미를 다루는 시사교양프로그램이다. 콘텐츠를 만들 때 '가벼운 주제는 무겁게, 무거운 주제는 가볍게' 다루려고 노력한다. 예로 '공포의 애교녀' 인터뷰는 아주 조심스러웠다. 공포의 애교녀는 사람들한테 '웃기고 재밌는' 콘텐츠로만 소비되고 있었다. 하지만 얘기를 나눠보니 당사자는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 주제를 무조건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희화화'의 대상으로 고통 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영상 지우기' 콘텐츠를 만들었다. 감사하게도 대중들도 이런 우리 의도를 잘 알고 반응해 줬다.

지연 직업으로 최종 목표는.

재재 엘렌 쇼와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다. 계속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제작자로 자기 계발을 해나갈 것 같다. 이렇게 성장하다보면 언젠가는 최종목표에 도달해 있을지도 모르겠다. 꿈은 크게 가지라고 하지 않는가. 그래야 그

스브스뉴스에서 이은재 PD의 인기가 날로 오르며 '재재특급'이란 개인 콘텐츠 채널도 생겼다. ⓒ스브스뉴스 유튜브

근처에라도 가볼 수 있으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콘텐츠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싶다.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재밌게 만들 수 있다.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만드는 것이 또 다른 목표다.

인생 선배로서 이은재

소정 PD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재재 반드시 공채 PD로 시작하기를 권한다. 초반부터 스브스뉴스로 오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 정규직 경험을 쌓고 오면 더 좋을 것 같다. 사실 나 때문에 스브스뉴스 입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아졌다고 들었다. 과장을 조금 보태면 이런 현상에 죄책감까지 느낀다. 나는 굉장히 특이하고 운이 좋은 케이스다. 뉴미디어 시장은 인력이 자주 바뀌고, 돈도 많이 받지 못해,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다. 최대한 높은 곳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웃음) 예를 들어 스브스뉴스에 들어오고 싶다면 SBS 공채 PD로 들어온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다.

소정 대학생이 꼭 해봤으면 하는 활동이 있다면.

재재 보통 학교마다 외국 탐사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학교에서 지원해 줄 때 갔다 오면 여러모로 좋다. 대학생 때 또래 친구들과 외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 나중에 매우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다. 친구들과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도 추천한다.

인터뷰가 끝난 뒤 이은재 PD는 팬 3명과 사진을 찍고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팬들은 준비했던 손편지를 이은재 PD에게 전달하고, 싸인을 부탁하기도 했다. 인터뷰 내내 이은재 PD는 팬들이 어색하지 않게 재치 있는 입담을 과시했다. 팬들은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박수를 치고 폭소하며, 다양하고 재밌는 리액션을 보였다.